



中共. IAEA에 곧加入

中共은 가까운 장래에 原子力의 平和的 使用을 目的으로 조작되어 現在 美國等 1백여개국 이상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유엔산하 국제原子力기구(IAEA)에 加入할 것이라고 리·지아오 第2機械工業副相이 말했다고 한다.

北京을 방문중인 民間日本原子力에너지産業代表團(8名)이 이같은 사실을 밝혔는데中共은 IAEA 加入을 위해 빈에 있는 IAEA 본부와 회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運轉繼續許可一美 인디언포인트 原電 2, 3號機

NRC 全員一致

美原子力規制委員會(NRC)는 7月11日 뉴욕州에 있는 인디언포인트原子力發電所2, 3號機의 運轉繼續을 許可(暫定)를 全員一致로 決定하였다.

인디언포인트 原電은 뉴욕시 北方 50마일程度의 距離이다. 美國에서도 最高의 人口密集地에 近接하고 있어 50마일 以內에는 700萬人이 살고 있다. 이때문에 同原電은 대단히 危險하므로 原子力批判派의 「憂慮하는 科學者同盟(UCS)」이 2, 3號機의 運轉中止를 要求하고 있다.

NRC스탠이 立地條件, 設計, 公衆의 防護措置等 多く 規點에서 디스크評價를 하여,

「인디언포인트原電이 高密度地域에 있어 立地條件가 나쁘며, 同原電에 餘分으로 設置된 工學的 安全措置에 依해서 相殺된다」고 結論짓고 NRC에 報告했다.

스탠 報告를 받은 인디언포인트原電의 運轉繼續은 暫定的으로 認可되었지만 最終的으로는 現在 進行中인 原子力安全 許可會議(ASLB)에 依해 聽聞會 手續을 거쳐 決定된다.

原電 · 石炭發電 더 늘려야

IEA 각국에 油類節減 당부

國際에너지機構(IEA)는 石油代替에너지源으로 加盟各國이 추진키로 한 原子力發電所 증설計劃이 立地確保難 등으로 당초 計劃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世界에너지需給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各國은 原電立地政策을 강화하는 한편 石炭火力發電所建設로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石油火力發電所建設은 계속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IEA의 이같은 分析과 建議는 작년 하반기 20個 加盟國(現在는 21個國)을 대상으로 조사한 國別에너지計劃 조사결과에 따른 것인데 당초 加盟國 전체의 原電 발전능력은 78년의 9천 8백만 Kw에서 85년에는 약 2억 2천만 Kw, 90년에는 3억 2천 6백만 Kw에 달해 이 計劃이 그대로 實現되는 경우 加盟國 전체의 發電능력에서 原電이 차지하는 比率은 78년의 11%에서 85년에는 20%, 90년에는 26%로 提高된다. 그리고 지난 6月 베네치아에서 열린 先進國頂上會議에서 결의된 「石油代替에너지 10년간 倍增計劃」도 이같은 各國의 計劃에 바탕을 두고 있다.

日本, 原子爐 4基建設 承認

日本의 核에너지安全審議는 7月29日 지난해 3月 美國 드리마일島의 原子力發電所

가 방사능누출사고를 일으킨이래 日本의 첫原子爐建設조치가 될 4基의 原子爐建設을承認했다고 發表했다. 政府의 자문기관인 이 심의회는 東京西方 3백68Kw의 多까하마(高浜)에 있는 関西發電所에 각각 87만 kW급 PWR 2基와 東京北方 2백40km의 후구시마(福島)에 있는 東京電力會社의 福島發電所에 각각 1백10만kW급 BWR 2基를 건설할 것을 허가했다.

日本의 原子爐建設은 종전에는 通產省의 허가만 받으면 됐으나 TMI原電事故後 2중 안전 점검제도를 도입, 通產省과 核에너지 안전심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도록 變更되었다.

아시아 原子力 協力센터 構想

日本 政府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회 核擴散防止條約 재검토회의에서 아시아 原子力 지역協力센터(가칭)의 설립構想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이 構想은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을 위한 아시아지역 諸國間의 協力を 擴大키 위한 것으로 이의 구체화를 위해 9月 外務省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이 東南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核擴散防止條約이 발효된지 올해로 10년이 되지만 이 條約이 加盟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先進國의 原子力 開發과 그 平和的 利用에 대한 소극적인 協力姿勢에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프랑스 原電 電力생산 39%增加

상반기중 2백63.3억 kWh

프랑스의 原子力發電所에서 '금년상반기중 생산된 電力은 2백63억 3천 4백만 Kwh로 79년 同期보다 38.8%증가한 것으로 產業省의 최신통계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發電量은 5백80만톤의 石油에 해당하며 이에비해 79년 상반기의 原子力發電量은 4백20만톤

의 石油에 상당한다.

6월 한달동안의 프랑스 原子力發電量은 36억 9천 6백만 Kwh로 지난해 6월보다 31.3%증가했으며 전체 전력생산량의 21.6%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의 비율은 17.5%였다.

IEA 理事會 개막

OECD와 合成燃料開發 計劃

국제에너지기구(IEA) 理事會가 7月23日 파리에서 會議를 소집, ▲최근의 石油市場 추세 ▲非石油에너지 資源의 供給과 使用증 가방안 ▲原油 備蓄 정책 ▲IEA,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공동기구설립방안등을 論議했다.

IEA사무국은 IEA 理事會를 위해 최근의 石油市場情勢에 대한 報告書를 作成했다고 밝히고 IEA 理事會는 지난 5月의 IEA閣僚會議와 6月의 서방선진 7개국 경제정상회담(베니스에서 開催)에서 채택된 에너지 정책결정들의 실천방안을 論議했다고 말했다.

서방 선진 7개국 경제정상회담에서는 非石油에너지資源의 供給과 使用촉진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해 석탄生産倍加, 原子力에너지計劃 擴大合成燃料및 태양에너지開發등에拍車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IEA 理事會는 향후 1~2年間의 合成燃料開發協力計劃을 감독하기 위해 OECD와 共同機構를 설립할 것 같다고 한다.

日本 科學技術廳長官에

中川 一郎氏

通產相에는 田中氏

日本의 鈴木 善幸 首相은 組閣에서 中川一郎氏를 科學技術廳長官에, 田中 六助氏를 通商產業省相으로 起用 發令하였다. 中川新科技廳長官은 「資源이 빈약한 日本에 있



어서 에너지問題는 繁要한 課題가 되고 있다. 그 中에서도 原子力은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源이다. 安全性에 万全의 措置로 國民의 理解와 協力を 얻도록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싶다」고 所信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當面한 最大의 壁이 되고 있는 原子力立地에 對해서는 「理解를 求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라 말하면서, 局面打開를 為하여 新長官으로서 原子力行政의 強力한 支柱로서의 姿勢를 明혔다. 또 原子力船「MUTSU」의 問題로서는 「遮蔽改修工事を 進行하여 하루라도 빨리 母港을 決定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田中 新通產大臣은 에너지의 安定確保의 重要性을 指摘한 後, 特히 原子力問題에 對해서는 「國民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것이 많다. 그 때문에 原子力에 對한 國民弘報와 補償, 環境問題는 多少 코스트가 더 들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最近 問題가 되고 있는 電源立地促進을 為해서는 「電源立地 地域의 사람들과 面談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地域別 電氣料金制도 그 하나의 方法이라 말했다.

카터, NRC 위원장에

Aldert Carnesale박사 임명

NRC에 강력한 지휘권 필요성 강조 예상했던대로, 카터대통령은 7月9日 NRC

위원회으로 하버드대학교의 Aldert Carnesale박사를 임명했다.

카터대통령은 Carnesale박사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TMI사고와 KEMENY COMMISSION (TMI사고 대통령조사위원회) 보고서가 NRC에 강력한 지휘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Carnesale박사가 그런 강력한 통솔을 할 수 있고, 취할수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Carnesale박사를 임명했다. 또한 Carnesale박사는 원자력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안전의 중요성을 경시하는데 특히 민감할 것으로 안다. Carnesale박사의 통솔아래, NRC는 KEMENY COMMISSION 권고가 충분히 이행되고 일반 국민의 안전과 보건이 원자력발전소로 부터 확실하게 보호 받도록 노력을 강화하는 일을 할 것이다.”

BNFL 세번째 核燃料

輸送船 建造

BNFL(British Nuclear Fuels Limited)은 유럽 路線에 就航시킬 核燃料 輸送船을 建造하기로 決定했다.

전체비용은 容器를 包含하여 약 9백만파운드이다.

이번에 建造하는 輸送船은 1,150ton 으로 日本 路線에 就航중인 것보다는 작지만 그 船과 마찬가지로 高度의 標準으로 建造될 것이다.

이 배의 特徵은 貨物 전체를 2종 船體로 効果적으로 만드는 칸막이를 갖고 있는 점이다.

물이 새지않는 각각의 칸막이들 사이에 있는 空間은 加外의 浮力を 增加시키고, 萬若 衝突時 衝激을 泄止하게 되어 있다.

이 배는 Swan Hunter造船技士들에 의해 建造되는 세번째 核燃料輸送船이다.

3천ton의 Pacific Swan은 작년 4月부터 日本 路線에 就航하고 있다.

Magnox와 Oxide 두가지 전부를 輸送하지 않고 Oxide燃料를 輸送하도록 設計된 Paci-

fic Swan과 똑같은 두번째 배도 거의 完成되어서 곧 命名을 하고, 역시 日本 路線에 就航할 것이다.

1981年 9月에 完成될 세번째 배는 Wind-scale에서 再處理를 위해 이탈리아의 Latina 原子爐로 부터 Magnox燃料를 輸送하는데 처음 使用되지만,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國家들에서 역시 Oxide燃料 船積에 利用될 것이다.

核燃料輸送 目的으로 建造된 배 외에도 2隻의 特別 改造된 核燃料輸送船인 Pacific Fisher와 Bay Fisher가 각各 日本, 유럽 路線에 就航하고 있다.

BNFL의 子會社인 Pacific Nuclear Transport Limited는 容器와 船舶들에 약 100백만 파운드를 投資할 것이며 1980年代에 6隻이 運航하게 되기를 期待한다.

日本. 核禁止헌법 해석으로 論難

이또(伊東正義) 日本 外相이 8月19日 衆議院 外交 委員會에서 「日本은 헌법상 核兵器를 保有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 外務省 안에서는 「外相이 정치인으로서의 신념을 얘기한 것이고 헌법 해석상 논의를 거친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이또外相 발언이 종래 정부 견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核兵器 保有문제는 78年 당시 소노다(園田)外相이 「헌법정신에 비추어 核兵器는 保有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이것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부는 후에 소노다 外相의 발언을 공식 수정, 「헌법상 순수 防衛目的의 核兵器 保有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또外相의 이번 발언은 이같은 정부의 헌법해석을 다시 수정한 것이 되는데 日本이 헌법상 核兵器를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野黨이 日本의 방위력 증강에 쇄기를 박으려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앞으로 다시 激論을 불러 일으킬 것 같다.

日外務省 사무국측은 이또外相 발언이 社會黨 도이(土井)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으로 긍정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 견해를 表示한 것은 아니며 그 헌법상 해석 문제를 반복해서 논의가 되고있고 이번 발언이 그같은 논의를 거친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종래 정부 견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 사무국측이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外相 發言은 그것으로써 무게가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이또外相은 오오히라 내각의 官房장관을 지낸만큼 정부 견해를 몰랐다는 얘기는 통하기 어렵다.

外務省은 정치가로서의 신조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外相의 머리에 「헌법상 核兵器를 보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한 이 같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도 주목된다.

앞으로 野黨측이 이같은 外相의 발언을 물고 들어지는 경우 정부로서는 최근의 방위력증강 논의와 관련, 어려운 처지에 몰릴 전망이다.

스위스. 2個月以内

原爆생산 가능

東西양 진영의 완충역할을 맡고있는 영세 中立國 스위스는 核무기개발을 서둘기만 하면 앞으로 2個月 以内에 수개의 原子彈을 아무 어려움없이 생산해 낼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스위스가 世界 선진 핵기술국가임을 공식 확인했다.

스위스 정부 관리들은 스위스의 對아르헨티나 重水핵플랜트 수출에 반대하는 핵국가들이 스위스가 英國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빌어 쓰고있는 점을 지적, 수일이내에 10여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핵폭탄제조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일에서 2個月 以内라고 밝혔다. ■